

2017 동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충청북도 음성군
- 대소지역아동센터



2018. 1

김*연

5일 동안 대소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행복했다. 워낙 아이들도 좋아하고, 봉사활동을 즐겨하는 편이어서 만족스러웠던 활동이었다. 봉사활동을 가기 전에는 사실 약간 부담이 되기도 했다. 5일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고, 자체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가야했기 때문이다. 시기도 종강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가야했기 때문에 조원들과 만날 시간도 충분치가 않았다.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조원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해갔다. 봉사 첫날 기관 측에 스케줄을 보여드리고 약간의 수정을 거쳤다. 생각했던 것보다 활동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했다. 또한, 전달받은 바로는 저녁식사까지 기관에서 먹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다. 기존의 전달받은 정보와 다른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지만, 다음번에는 기관과 직접 자주 소통하며 확인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준비한 만큼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었고, 무엇보다 대소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은 뭘 해도 귀여웠다. 초등학생들만 가질 수 있는 순수함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특히, 이번활동에서 '과자집 만들기'를 자체적으로 준비해 갔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해줘서 고마웠다. 아이들이 자신의 과자집을 만들고 뿌듯해하는 것을 보니 나도 덩달아 뿌듯했다. 그리고 전통놀이를 하면서는 순수하게 승부욕에 불타오르는 아이들을 보며 나를 반성했다. 그 아이들에 비해 나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열정을 삭히려고만 한 건 아닌지 나태한 나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지만, 그 마음을 다 표현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잘 안들을 것 같아서, 내색은 잘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면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차질이 생길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끄러우면 소리도 좀 지르고, 혼도 내고 해서 나를 미워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진심은 그게 아니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번 봉사활동은 정말 즐거웠고, 조원들과 함께해서 더욱 행복했다. 곧 잊혀지겠지만, 당분간은 잊고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인

충북 음성이라는 낯선 곳에 내가 봉사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를 시작하게 되었다. 학년이 다양하고 기관에서는 예체능 중심 프로그램을 원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짤 때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학습에 의미를 두자니 너무 프로그램이 무거워졌고 가볍게 하자니 아이들이 얻는 것이 없을까 걱정이 되어서 팀원 전체가 프로그램 짜는 데에 시간을 많이 쏟았다. 사실 내가 맡은 에코백 만들기과 달력 만들기는 미리 만들어 보고 문제가 발생할 요소가 덜했기 때문에 안심이었다. 하지만 막상 기관에 갔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으며 운영시간도 9시가 아닌 오전 11시부터 시작이라는 점, 점심시간이 2시간이고 5시가 되면 아이들이 집에 간다는 점이 우리가 사전에 알던 기관정보와 달랐다. 다음에 봉사하게 된다면 반드시 기관과 많은 사전 연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기관에 구비되어있는 물품이 부족하다는 점, 아이들이 감기로 인해 조퇴나 결석할 수 있다는 점, 프로그램 진행시간이 연장 될 수 있다는 점 이 세 가지를 크게 알게 되었다. 어른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쉽고 빨리 끝날 수 있는 일이지만 아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아이들이기에 말과 표정관리에 신경을 썼다. 하루하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항상 녹초가 되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먼저 우리들의 이름을 외워주고 말을 걸어주었기 때문에 나도 빨리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비록 짧은 5일 동안의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의 시선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며 어리다고만 여겼던 초등학생으로부터 배울 점을 많이 얻어가는 시간이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대소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김*수

사실 지난여름 다른 지역으로 이화봉사단을 한차례 다녀온 나는 함께 다녀온 단원들과 쌓은 정 외에는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센터와 소통도 잘 되지 않았었고 보조 교사분들도 계시지 않아서 프로그램 진행 자체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우리가 너무 기대에 부풀었던 건지 아이들의 반응도 생각보다 냉담해서 당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게 봉사활동의 전부가 아닐 거라는 사회봉사팀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다시 지원했고 역시 지난여름의 활동이 봉사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우선 학교에서 역사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일종의 틀을 잡아주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그램을 짜는 부담이 덜해서 좋았고, 센터에 계신 선생님들 또한 우리의 상황을 배려해주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셨던 것 같다. 사실 지난번 봉사 때에는 육체보다 정신적으로 힘든 것이 컸는데 이번 활동을 하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단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즐거웠던 것 같다. 시작하는 아침에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밥 먹고 준비하는 동안 우리끼리 한탄도 많이 했지만 막상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다들 아이들과 어울려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했던 것 같다. 만들기와 꾸미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어서인지 대부분의 활동들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열심히, 즐겁게 해주었다. 다만,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역사프로그램의 수준이 아이들의 수준보다 생각보다 높아서 자체적으로 생략하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미리 준비해 간 지진 경보기 만들기 또한 아이들의 수준보다 높은 것 같아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5일 동안 우리를 잘 따라와주고 즐겁게 참여해주었고 센터에 계신 분들도 아이들을 통제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등 수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수월하게 봉사활동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화봉사단 대소지역에 선발되고 나서 처음에는 기쁜 마음이 컸지만, 막상 떠나기 전에는 처음 도전하는 교육봉사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대소지역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다. 도착하여 생소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 체력적인 어려움과 적응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모든 프로그램을 호기심으로 반짝거리는 눈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였던 아이들의 모습이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임하게 해주었던 것 같다. 하지만 아이들끼리의 싸움이 조금 잦아 조금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는 지적인 능력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낮은 아이도 있었는데, 그 아이는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할뿐더러 프로그램의 과정과 참여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여 다른 아이들의 질책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옆에서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머물며 지도하면서 많이 따라와 주었고, 그 점에서 뿌듯함을 느낄 때도 있었다. 앞으로 기관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그런 몇몇 아이들을 더욱 더 세심하게 케어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은 다음에도 우리가 이곳을 찾아왔으면 좋겠다면서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떠나는 입장으로서는 아이들과의 헤어짐이 너무나도 아쉬웠다. 이번 봉사를 통하여 아이들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내적인 성숙도 경험하게 되었기에 무척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경험을 제공해주신 대소지역아동센터와 이화의 사회봉사팀에게도 감사하다.

이화봉사단 활동, 교육봉사 활동, 충청북도 대소라는 지역까지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이화봉사단을 원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신청을 놓쳐서 안타까웠던 참에 대타로 이번 대소지역아동센터에 가게 되었다. 생각지 못한 팀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되어서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직접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생각보다 즐거웠다. 아이들의 입장이 되어서 어떤 것이 좋을지 생각하는 것도 좋았고, 어떻게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다. 1월 8일에 도착한 대소 지역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었다. 개인적으로 농어촌 풍경이 익숙해서 마음이 놓였고,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이 12-13명으로 대다수라고 들어서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밝았고,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을 잊고 수업을 진행했었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아이들은 더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내 자신의 편견을 많이 버리고 온 것 같다.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적극적이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힘들었다.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없었고, 아이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어도 그 다음 활동을 준비해놓아야 아이들이 만드는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었다. 또한 생각보다 부족했던 예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물로 줄 수 없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다. 나름대로 1200원의 지워지는 볼펜과 이화 스티커를 준비해갔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레고나 조금 더 즐길 것이었고, 저녁식사가 준비되지 않아서 마지막 날 족발과 국밥을 먹은 것을 빼고는 편의점에서 먹거나 생각보다 넉넉한 식사를 즐기지는 못했다는 것이 아쉬웠다.